



World Council  
of Churches

# 202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 -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예술

*성실하신 나의 하느님, 수금을 타며 노래불러 올리리이다.*

*날짜: 2021년 9월 18일 - 25일*

*주제: 시편 71:22 (공동번역)*

*성실하신 나의 하느님, 수금을 타며 노래불러 올리리이다.*





## 배경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도덕적 관점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자유와 인권, 자기결정권을 필요로 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은 종식되어야 한다. 종교적 소속이 무엇인지가 다른 공동체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의 표현인 국제법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도덕 규범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수 년 동안 WCC 정책 발표와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점령이 계속됨에 따라 인권침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WCC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전 세계 회원교회와 신앙공동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한 주 동안 정의와 희망을 나누는 전 세계의 신자들과 개인들이 연합하여 평화적인 행동을 취하고 세계가 공동으로 공공의 증언을 만들도록 초대된다.

## 2021 정의와 평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예술

갈등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 평화, 화해를 향한 기여에 예술과 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과 화해, 문화와 갈등, 그리고 예술, 갈등, 문화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예술적인 표현이 사회-정치적 요인을 넘어 갈등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해를 향한 예술 기반의 창조적 접근이 지닌 깊은 잠재력을 살펴보게 된다. 예술에 기초한 접근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이는 평화구축과 전환기 정의를 향한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보다 더 환영받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위한 희망의 예술적 표현을 촉진하고, 예술을 통해 창조적인 평화구축 이니셔티브를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들을 초대한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하나의 신성한 가치이다. 우리들 몇몇은 와서 보길 선택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 읽는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림, 가사, 음악 그리고 여러 예술적인 창조적 표현을 통해 그것을 목격한다.

문화적인 춤과 이야기, 시와 노래를 통해 우리는 점령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볼 수 있다. 지금 분리장벽에 가서 이야기를 읽어보고, 세계적인 유명 예술가(뱅크시처럼)들이 분리장벽 그래피티를 통해 어떻게 진실을 묘사했는지 보기를 바란다. 아이다 난민캠프에 가서 난민들이 장벽에 그린 그림을 통해 1948년의 파괴된 마을들과 인티파다 동안 잃어버린 생명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젊은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외침과 희망을 들을 수 있다. 하이파나 베들레헴, 가자지구에 가면 장벽에서 진실을 보게 된다. 진실은 추악한 벽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실하신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고 진실을 그려낸다.

##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에 감사합니다.  
주님, 점령의 고통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살상, 파괴와 장벽 가운데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들이 꿈꾸는 평화의 모습을 그리는 붓으로  
성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심어 주시고, 평화를 보지 못한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평화사절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아멘.

